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14)	봉헌 (219)	성체 (188)	파견 (174)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에서의 기본 예절

- 미사 시작 20~30 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 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여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사 전의 발성연습과 성가연습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꺼 놓습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반드시 성당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대)십자 성호를 그은 후 두손(기도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여러 차례 성당을 드나들 경우, 대부분의 교우 분 들은 성수를 처음에 한 번만 찍고 반복해서 안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성수는 성당에 들어갈 때 마다 매번 찍어야 합니다.
- 성당에서 나갈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
- 성당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물이나 음료, 먹거리 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임 신부 님 또는 지도(담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9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6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5/1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20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체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31	\$	\$2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회의는 5 월 13 일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매주 해당 성경말씀을 필사하여 그 말씀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5 월 20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 새로오신 김희수 바오로 형제님을 환영 합니다.

성모의 밤 행사 5 월 21 일(월) 6:45pm

이번 성모의 밤은 지난번과 같이 성당 옆 잔디밭에서 하겠습니다. 행사 후 친교실 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성령기도회 피정일정 5 월 25,26,27 일

우리 신부님이 지도 신부로 계시는 성령기도회 임원들의 피정이 우리 성당에서 25,26,27 일 삼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 은총 속에 좋은 피정의 시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전승환 레오 | 작가-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조금은 여유 있어지고 기쁨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장통을 하느님 품 안에서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성당은 늘 안식처였습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당 이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곳도 성당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배웠기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과 같은 자존감도 신앙 안에서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느님의 삶을 배우는 곳이였기에 그분의 발자취와 행적, 그분이 행했던 일과 말씀들이 언제나 제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향로를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교사 시절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납니다. 하느님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한 아이가 도로 위의 화살표를 찍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화살표가 어떻게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화살표는 하느님께 가는 이정표예요”라고. 그 당시 아이의 대답에 깜짝 놀랐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아이의 눈을 빌려 저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너에게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싶다고, 내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씩은 아프고 눈물이 나는 날들을 겪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이정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언제나 내 뒤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제시해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게 큰 품으로 품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기준을 정해 살아간다면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늘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_서울주보에서\_

교리상식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면서요?

빵을 쪼개는 행위는 유다 풍습으로, 빵을 나눔으로써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일치를 다지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런 전통이 사도 시대에 와서는 함께 빵을 나눔으로써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체 직전 빵을 쪼갬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